

초기노인의 신체 변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수진¹, 이영희^{2*}

¹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가톨릭관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Lived Experience of the Change of the Body in Young-Old Adults

Su-Jin Lee¹, Young-Hee Lee^{2*}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unsan College of Nursing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초기노인이 경험하는 신체변화의 의미와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J시 65세-74세 노인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초기노인이 체험하는 신체변화의 본질적인 주제로 '나이듦에 대한 연민', '타인의 모습 속에 투영된 나', '붙잡아두고 싶은 세월의 흐름', '외모에 우선하는 웰빙'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급격한 신체변화가 나타나면서 변화된 몸에 대해 아쉬워하고, 이러한 변화를 타인에게서도 발견하게 되면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참여자들은 세월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하지만 나이 들어 변한 신체 변화를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한 몸을 위해 노력한다. 이는 초기노인의 신체변화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 초기노인, 몸, 노화, 질적연구, 경험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essence of the experience of bodily change in young-old adults.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method was utilized. Study participants were 11 elderly who 65 to 74 residing in J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from July to September 2016. The essential themes were identified regarding the experience of bodily change in young-old adults: 'self-pity about perceived aging', 'myself projected onto others', 'wants to hold on passing of the time', and 'priority on wellbeing than appearance'. The present findings can be used as important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s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for young-old adults.

Key Words : Young elderly, Body, Aging, Qualitative Research, Experien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를 중심으로 2020년 15.7%, 2060년에는 43.9% 수준에 이

를 것으로 예측된다[1]. 이처럼 평균수명의 연장과 의학의 발달로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사는 노인상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2].

초기노인은 노년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노년으로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3]. 일본 액티브시니어협회에서는 65세에서 74세의 초기노인들을 '액티브시니어'라고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fro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Young Hee Lee(lyh@cku.ac.kr)

Received October 27, 2020

Accepted January 20, 2021

Revised January 5, 2021

Published January 28, 2021

칭하며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며 외모와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4]고 하였다. Lee [5]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인식을 벗어나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여 '뉴 시니어' 문화를 새롭게 정립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에도 불구하고, 늙어감에 따라 노인의 신체는 약해지고 신체적 제한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며 최근에는 연령을 뛰어넘은 외모지향성이 사회 전반의 화두가 되어 주름살, 흰머리 등 노화의 표상을 간직하는 것은 게으르고 시대에 뒤떨어지며 자기관리를 못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2].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노화를 두려운 변화로 느끼게 하며 노년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 신체 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6].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주요 우울장애의 위험이 증가되고, 노인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삶의 질 저하, 활동수준의 감소, 사회적 상황의 회피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7].

노화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는 점진적 과정으로, 자신의 노화를 감지하는 것은 대개 신체 변화를 통해서이며 초기노인은 노화의 가시적인 징후가 나타나는 시기이다[8].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를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나이 들면서 몸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행해진 연구는 많지 않으며[9], 남성 노인의 신체 이미지와 노화 경험에 관한 연구[10] 외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변화 체험을 다룬 연구 또한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에서 빈곤 노인을 대상으로 노년기의 전반적인 삶의 의미를 노화 경험으로 연구한 것[11]과, 중·노년 여성의 외모에 관한 연구[2,12], 여성 노인의 신체 인식과 외모에 관한 연구[13]로 남성이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외모중심으로 연구되어 초기노인의 전반적인 신체 변화에 따른 체험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연구들은 아직은 노인집단 내 세대별 연구로 세분화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정책적 시급성을 이유로 주로 노쇠하고 병약한 후기 노인층에 해당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한 노인이 많은 초기 노인층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3]. 초기노인들이 노년기로의 진입에서 어떠한 신체변화 체험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노인이 신체

변화에 대해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가는지를 더 면밀히 탐색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그에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van Manen [14]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접근은 일상의 체험을 탐색하여 생생한 체험의 본질이나 의미를 서술하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상자의 언어, 신념, 문화, 사회적 관습 등에 내재되어 있는 체험의 내적 의미 구조를 드러내고 기술하며, 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돕는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여 초기노인의 노화에 따른 신체변화 체험의 본질을 발견하고 기술함으로써 이들의 체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초기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노인의 신체변화 체험을 탐색하여 그 체험의 본질적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나이들에 따른 신체변화를 경험하는 초기 노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기노인의 신체변화 체험을 탐색하여 그 체험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van Manen [14]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2.2 체험의 본질에 집중

2.2.1 현상에 대한 지향

초기노인의 노화에 따른 신체변화 체험이라는 현상을 지향한 것은 나이에 비해 부쩍 많아진 흰머리와 얼굴의 주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염색해야 하지만 정해진 기간에 가지 못하고 새하얀 머리카락이 올라와 눈이 덮인 것처럼 보일 때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시야가 흐릿하고 음식을 먹을 때면 사레가 들리는 일도 찾아져 걱정되기 시작했다. 초기노인인 어머니는 어떨까. 노화로 인한 신체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고 수용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노화에 따른 신체변화

체험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초기노인의 노화에 따른 신체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현상을 지향하게 되었다.

2.2.2 현상학적 질문 형성

본 연구자가 가진 현상학적 질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경험하는 초기노인의 신체변화 체험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이었다. 이러한 현상학적 질문에 접근하고자 ‘초기노인이 신체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초기노인이 신체변화와 관련하여 무엇을 경험하는가?’ 등과 같은 질문을 통해 현상에 몰입하고자 하였다.

2.2.3 연구자의 준비

연구자는 종합병원에서 10여 년간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많은 노인을 접하였고, 노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하였다. 한국질적연구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다수의 질적 연구 학술대회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워크숍에 참가하였고 대학원에서 질적간호연구를 수강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대해 그룹스터디를 진행하였고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 바 있다. 또한, 질적 연구와 관련된 논문과 서적을 지속적으로 탐독하였다.

2.2.4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

연구자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전, 연구자의 신체변화 체험에 관한 선 이해를 밝히고 연구자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연구자의 신체변화에 대한 선 가정과 선이해는 다음과 같다.

초기노인의 나이들에 따른 신체변화 경험은 성인 및 후기노인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초기노인은 나이들에 따른 신체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초기노인은 흰머리, 주름, 검버섯, 비만 등의 신체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외모에 대해 치장하고 가꾸는 초기노인은 극소수일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모든 가정, 선이해를 중지시키고 팔호치기 하기 위하여 연구기간 동안 이러한 것들과 거리두기를 실천하였는지 반성하였다.

2.3 자료수집

2.3.1 문학과 예술로부터의 경험적 묘사

본 연구자는 문학과 예술작품에서 현상의 묘사를 조사하면서 초기노인의 나이들에 따라 경험하는 신체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통찰력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초기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은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 노인을 대상으로 다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마광수의 시「늙는 것의 서러움」, 최병무의「누가 나를 할아버지로 불렀다」와 「노년의 입구」, 문중수의「육순의 문턱에서」를 포함한 4편, 오스카와일드의「도리언그레이의 초상」, 최일남의「아주 느린 시간」을 포함한 소설 2편, 「은교」, 「수상한 그녀」를 포함한 영화 2편, 홍정구의「나이들을 즐긴다는 것」, 미야우치 하쿠이치의「노년이 좋아야 인생이 아름답다」를 포함한 수필 2편, 권순철의 얼굴, 최수양의 영웅, 대비한의 미인을 포함한 그림이나 조각품의 예술작품 3편, 노인 성형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1편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2.3.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주제에 맞는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J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 방문하여 책임자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등을 설명한 후 연구 허락을 받고, OO클래스 노인들에게 연구에 관해 설명한 후 참여 의사를 보인 참여자에게 직접 승인과 서면 승인을 받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노년기를 인생 주기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은 노년기 안에서 노인집단 내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노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초기노인은 65세에서 74세, 중기노인은 75세에서 84세, 후기노인은 85세 이상으로 구분한다 [15]는 보고에 의거하여 초기노인으로 65세에서 74세의 노인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복지관에서 만난 참여자와의 면담에서 눈덩이표집을 통해 65세에서 74세의 남녀 초기노인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참여자를 추가 선정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의 충분한 수집을 위해 연구참여자와 심층면담을 통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65세-69세가 6명으로 남자 1명, 여자 5명이었고, 70세-74세가 5명으로

남자 3명, 여자 2명으로 총 11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배우자와 살고 있었고 여자참여자 1명만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모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

2.3.3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C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 진행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IRB NO: JBNU 2016-10-005-001). 면담 시작 전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면담 내용의 녹음,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익이나 위험 요소, 비밀유지와 익명성, 참여 과정에서 언제든지 원하면 연구를 중단할 수 있음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참여자의 진술은 본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연구결과가 논문으로 출판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서면으로도 연구에 동의를 얻었다. 면담 내용의 필사는 연구자가 직접 시행하고 내용을 관리하였으며 필사본, 연구 참여 동의서, 현장노트 등의 연구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였다가 연구 종료후 폐기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전에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구두 동의를 얻은 후 1차 면담 날짜를 정하였다. 1차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설명문을 함께 보면서 연구에 관해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고,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대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자와의 면담 장소는 주로 참여자들의 집에서 가까운 거리의 커피전문점의 독립된 방에서 이루어졌다. 참여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여 점차 신체변화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하였다. “나이 들면서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와 같은 광범위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나이 들면서 몸에 대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무엇을 보고 나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젊었을 때와 달라진 몸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등의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더 상세하거나 심층적으로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 무엇을 경험하였

습니까?”와 같이 현상에 집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을 사용하였다. 면담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평균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으며 1인당 1회에서 2회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시에는 녹음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녹음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면담 내용을 필사하였다. 자료를 필사한 후에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핵심적인 주제를 찾는 자료 분석과정을 거치면서 추후 면담 시 확인하거나 추가할 내용에 대해 메모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수집 과정을 통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아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2.5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먼저, 녹음기와 스마트폰에 녹음된 참여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며 들으며 기술된 내용을 세밀한 글 읽기 방법으로 읽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초기노인의 신체변화 체험의 본질을 나타내는 문장들을 찾아내어 분리하였다. 문장들을 분리한 후 참여자의 신체변화 체험에 집중하여 추출한 주제적 측면이 드러나는 의미 있는 문장과 비슷한 의미를 표현하는 다른 문장들을 묶어 참여자의 신체변화 체험에 대한 기본 주제로 발전시켰다. 그다음 전 단계에서 파악된 기본 주제가 드러난 문장들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그 문장 속에서 반복적으로 기본 주제를 묘사하거나 드러내는 단어나 문장들에 집중하여 기술하였다. 주제진술은 여러 번의 정련작업을 거쳐 추상적 언어로 명명하면서 참여자들의 체험 속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수집과정이나 해석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헌 분석은 자료수집과 1차 분석이 끝난 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단계로 들어가 분석된 주제와 같은 의미를 가진 기술들을 연구자의 경험과 현상학적 문헌, 예술작품에서 추출하여 비교·검토하는 작업을 거쳐 초기노인의 노화에 따른 신체변화 체험의 의미와 본질적 주제를 결정하는 데 반영하고 다듬어진 이야기로 만들었다.

2.6 연구의 엄밀성

본 연구에서는 Guba와 Lincoln [16]의 엄밀성 평가 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 적용성, 중립성 및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연구참여

자에게 면담기록과 분석을 보여주고 연구참여자가 진술했던 의미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적용성 확립을 위해 참여자의 구조적 기술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참여자의 진술이 반복되어 나타나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 현상을 최대한 풍부하게 기술(thick description)하고자 하였다.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초기노인의 신체변화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괄호치기하고, 참여자의 기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자와 인터뷰 전에는 노인의 신체변화 체험에 관련된 문헌을 숙독하지 않았다. 자료수집과 주제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문헌고찰을 실시하여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에게서 나온 면담 내용과 분석 자료를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 4인 및 질적 연구자 3인에게 보여주어 연구과정 전반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 주제 범주화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면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초기노인의 신체변화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초기노인이 체험하는 신체변화의 경험은 '나이듦에 대한 연민', '타인의 모습 속에 투영된 나', '붙잡아두고 싶은 세월의 흐름', '외모에 우선하는 웰빙'의 4개의 본질적 주제와 10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고 다음 Table 1과 같다.

3.1.1 나이 듦에 대한 연민

참여자들은 젊은 시절과 달라지는 신체의 변화로 현재 자신을 꾸밀 수 없게 되고, 나이 듦에 따른 삶의 흔적이 남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였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신체의 변화를 급격하게 체험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노인으로 보여지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서글프다고 진술하였고, 세월의 흐름을 빠르게 느끼면서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Table 1. The meaning of changes of the body experienced by the early elderly

Essential themes	Themes
Self-pity about perceived aging	The regret of one's aging appearance The sorrow about a withering body
Myself projected onto others	An alteration stream of joy and grief in constant comparison Dissimilar but equalized body changes
Wants to hold on passing of the time	A body that want to conceal The acceptance of body changes that can't deny anymore The adjustment to body changes
Priority on wellbeing than appearance	The youthfulness desire to regain The hope for a healthy body The pursuit of inner maturity

가. 나이 들어가는 외모의 아쉬움

참여자들은 체형의 변화, 주름살, 흰머리 등 원하지 않는 신체변화를 경험하고, 노화의 표식이자 삶의 흔적이 남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다. 이전의 외모를 유지하고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멋지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고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하는 신체변화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게 하였다.

나이 먹으면 먹은 만큼 그...삶의 흔적이 남잖아. 얼굴의 주름...뭘 그렇게 생기는지, 뭘 하이튼 몸의 그런 거는, 아직은 내 나이가 조금 더 깔끔하니 가지고 가고 싶은데, 나이를 먹으니깐 그런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이 남는 거, 그런 거는 아쉽지. 아쉽다든 아쉽지. 내가 십 년만 젊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 텐데...아쉬움이 있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깐(참여 5)

나. 시들어가는 몸에 대한 서글픔

참여자들은 앞으로도 몸은 더 변화될 것이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슬픔을 느꼈고 늙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표현하였다. 나이가 들자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다고 느껴졌으며 몸의 변화로 힘든 몸을 경험하면서 서글프다고 표현하였다.

나이 들면서 몸이 변하는 걸 느끼지. 바람빠진 풍선처럼. 아...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지 사실은. 서글퍼. 정말, 참...늙는다는 것이 서글퍼져. 야...이제 말하자면 나이가 이제 칠십이 넘으믄은 한해 한해가 틀려져요...칠십이 넘어서부터는 하루 하루가 빨리 빨리 가요. 얼굴

도, 얼굴도 주름이 많고 기억력도 없고 금방 한 것도 잊어버려. 얼굴에 주름이 많지. 늙었다는 생각에 한심하지.(참여자6)

3.1.2 타인의 모습 속에 투영된 나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타인과 비교하게 된다. 다른 노인들이 건강의 악화, 외형의 변화 등을 겪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신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므로 나만이 겪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지위나 외모도 소용없고 모두 같은 처지가 된다고 표현하였다.

가. 끊임없는 비교 속의 일희일비

참여자들은 다른 노인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고 그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하며, 노쇠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걱정하면서도, 자신의 몸의 상태를 파악하고 타인의 외모를 보며 앞으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 다짐을 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자꼬 건강한 사람한테 비교를 하면 더 내가 불행하지. 근데 인자 더 못한 노인들을 볼 때 이것만도 다행으로 알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바깥 활동은 하잖아요 자유롭게. 이것이 더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든 감사한 일이고, 또 녀들도 건강한 사람보든 난 왜 이러 이런 생각 들고 그래~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참여자2)

나. 달랐지만 같아진 신체변화

참여자들은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나이가 들면 누구나 똑같아진다고 생각하였다. 노화로 인한 신체의 변화는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므로 젊은 시절의 재력과 미모와 관계없이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됨에 따라 노화는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씨(탈렌트) 요새 맨 얼굴로 나오는 거 한 번씩 봐봐. 턱신도 틀리고 여기도 그러고 아주 축 처져갖고 늘어졌잖아. 참 불만하대...아무리 그 자리가 외모로 보일 자리라고 해도 나이한테는 못 따라가는 거여, 어차피 늙으면 똑같은 거지, 잠시 잠깐이지...(중략)...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고 제아무리 거식해도....(참여자11)

3.1.3 붙잡아두고 싶은 세월의 흐름

참여자들은 나이 들어 변화된 신체로 인해 스스로가 위축되고 자신의 몸이 뒤틀리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숨기고 싶어하였다. 나이들에 따른 신체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젊은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신체변화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므로 거부할 수 없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신체변화를 받아들이고 나이든 몸과 함께 살아감을 진술하였다.

가. 감추고 싶은 몸

참여자들은 노화로 인해 변한 흰머리, 체형 등은 남 앞에 섰을 때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라고 표현하였다. 노화의 징후들은 걸로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것은 몸무게뿐이라고 표현하며 나이 들어 변한 몸을 숨기고 싶어하였다.

이케 흰머리가 나면은 너무 나이가 들어 보여요.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고 남 앞에 이려고 갔을 때 그게 거슬려요. 그리고 자꾸 위축감 느끼고 흰머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염색을 안할 수가 없어...(중략)...나이가 들어 보여요.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싫죠. 남 앞에 갈 때 내가 그게 그냥 싫어요. 머리가 해야며는...(참여자1)

나. 거부할 수 없어 받아들인 몸의 변화

참여자들은 변화된 신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변화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몸의 변화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고 젊어지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내 스스로 어떤 젊었을 때의 모습과는 누구나 다 만족하지 못할거여. 세월의 흐름이란 것은. 그것은 체념하고...나도 내가 달라질 때 그것을 생각했었어요. 이제 이 삼십대처럼...자고 나면 꽤 좋겠지 해도 몸이...아무리 해도 안돌아가. 젊어지기 위한 것은 꺼꾸로 가는 것이고~. 거꾸로 가는 건 아니고... 좀 더 꺼꾸로 간다 그런 것은 이미 포기한지 오래지 하하.(참여자4)

다. 몸 변화에의 순응

참여자들은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며 현재

의 외모로 주어진 대로 살고자 하며 세월의 흔적을 가지고 순응하며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고 표현하였다.

인제 거울을 가만히 보고...인제 싹 지우고 거울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런데 이런데(눈가를 가리키며) 막 주름살이 있어. 배도 이렇게 이렇게 두뎅 두뎅...그래도 아...지금까지 이 나이에 참 잘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들어...나는 참 감사, 고마움 뿐이다. 그래서 이 몸을 오래오래 더 유지할 해야지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되지. 더 내가 무얼 바래. (참여자7)

3.1.4 외모에 우선하는 웰빙

참여자들은 더 이상 늙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신체에 투자해야 한다고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은 신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외적인 모습보다도 내면을 가꾸려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함을 표현하였다.

가. 되찾고 싶은 젊음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면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이 들었기 때문에 몸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멋진 모습을 가지려고 식이를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등 노력함을 표현하였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것을 인지하고, 그러나 좀 더 늙어보이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내 신체적 인 운동을 하고 정신적으로는 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음악활동 이라든가 댄스 활동 이라든 가...(중략)...배볼뚱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운동을 많이 하죠.(참여자9)

나. 건강한 몸을 소망함

참여자들은 외모나 체형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며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표현하였다. 나이 들어 약해진 건강이 신경 쓰이고 건강하면 다른 문제들은 해결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건강하기만 바라지. 다 소용없고. 인제 지금 그런 거 보이는 것은 신경 안 쓰여. 근디 몸만 건강하든 다 판 것은 될 것 같아. 금계 첫째 건강여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그게 최고여. 아픈데만 없으면 재밌지...젊어

서는 사람들이 얼굴 형이 좋네 뿔 허네 했는디...지금은 뿔 별로...신경 별로 안써. 인제 뿔 건강만 해지면. 판 것은 다 자연적으로 좋아지겠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있지.(참여자2)

다. 내적 성숙의 추구

참여자들은 외모보다는 내면을 다져야겠다고 표현하였다. 봉사활동이나 기부활동 등 베푸는 것을 통해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보다 성숙한 노년을 살아가고자 함을 진술하였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은 내가 내적으로 부족하니까....그걸 채울려고 그런 것이 있다. 그런 맘도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책을 좀 많이 봐야 될까. 내 좀...내면에 그런 것을 많이 채워야 되지 않은가. 근데 하여튼 기분은 좋아요. 그냥 저기 같다고. 연예인 같다고. 그렇게 입에 발른 소리겠지마는 볼 때마다 또 그런 소리를 하면은 기분은 좋은데...내면도 많이 다져야겠다 그런 맘도 들어요. 그 어디서 책에 보니까 내면이 부족하니까 뿔을 많이 자기 자신이 채우고 싶대요.(참여자10)

3.2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나이에 따른 신체변화는 누구나 경험하게 된다. 노년의 입구에 들어선 초기노인들의 신체가 변화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노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낀다고 표현한 초기노인의 신체변화 체험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노년에 들어서 급격한 신체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변화되는 신체에서 세월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깔끔한 모습으로 늙어가기 원하지만 체형의 변화, 흰머리, 건강 악화 등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였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쉬워하였다. 참여자들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늙어갈 몸에 대해 서글픔을 느끼며 연민의 감정을 가졌다.

자신은 나이를 먹은 것 같지 않으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세월이 흐름을 새삼스럽게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은 다른 노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신체 기능이 쇠퇴하면서 타인의 모습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기도 하고 타인과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현재는 모두 같은 처지가 됨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나이 들어 변화된 신체를 보이고 싶지

않으며, 흐르는 세월을 붙잡고 싶은 감정을 경험하였다. 변화된 몸을 숨기고 싶지만 나이 들어감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점차 인식하고 신체변화를 받아들이고 나이드는 몸에 적응하며 젊어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가족에게 신경 쓰던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멋진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신체를 가꾸는 것도 건강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가꾸고, 건강한 몸을 소망하며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적 성숙을 추구하였다.

4. 논의

본 연구에서 초기노인이 체험하는 신체변화는 '나이 듦에 대한 연민', '타인의 모습 속에 투영된 나', '붙잡아 두고 싶은 세월의 흐름', '외모에 우선하는 웰빙'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나이듦에 대한 연민'에서 참여자들은 노년에 들어서 나타나는 급격한 신체변화에 대해 아쉬움과 서글픔을 경험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연민을 가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노인이 노화로 인한 신체변화에 대해 자기연민을 가진다는 연구[17]와 비슷한 맥락이다. 자기연민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쳐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18]는 보고를 볼 때 초기노인의 신체변화에 대한 반응에 유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신체는 흠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며, 나이가 많을수록 나이 듦에 수반되는 외모의 변화인 흰머리, 주름 등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6]는 보고와 자신의 외모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미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경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의 저하로 이어져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건강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19]는 보고도 초기노인의 신체변화에 대해 함께 주시해야 할 측면들로 여겨진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젊은 몸을 추구하는 외모 지향적 사회에서 초기노인이 경험하게 되는 신체의 변화에 따른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신체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노인의 신체변화에 대해 나이 듦에 대한 자연적인 현상임을 알려주는 교육의 장을 노인복지센터나 지역사회 노인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타인의 모습 속에 투영된 나'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모습과 다른 노인의 모습을 비교하며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외모, 기

능, 건강 등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노인들은 타인과의 신체 비교를 통해 자신에 대해 더 잘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17]. 타인과의 외모 비교는 사회문화적 기준을 인지하고 내면화하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20].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다른 노인과의 비교를 통해 비교 대상자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고 있었고 자신과 비슷한 연령을 가진 노인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Carson와 Langer [21]는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게 될 때 더 이상 사회비교를 사용하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고 하였는데 초기노인이 변화된 신체를 좀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붙잡아두고 싶은 세월의 흐름'에서는 노화로 나타나게 되는 신체적 변화를 감추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 체념하거나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식하여 순응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화의 신체적 징후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이므로 수용한다는 Leichty 등[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현대 사회는 '연장된 중년'이라는 환상을 만들어 노화의 과정을 은폐하고 노화 과정에 수용하는 것이 아닌, 저항 하도록 하여 [22] 신체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받아들이는 자기수용은 노년기에 긍정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23]. 노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나이듦에 따른 신체변화를 피해갈 수 없으므로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화로 인해 감퇴되는 신체적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노년을 긍정적 측면에서의 발달이나 성숙의 개념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모에 우선하는 웰빙'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 상태보다 젊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이와 관계없이 남성은 신체의 기능적인 면에 신경을 쓰고 여성은 외모에 신경을 쓴다고 하였으나 [24] 요즘 시대의 노인들은 자신의 삶을 친척적으로 영위해 가는 존재이며 더 이상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황혼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길 위에 서고자 하는 존재로 기술되고 있다[5]. 자신의 신체를 관리하여 젊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되는 신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화과정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초기노인의 신체에 대해 재정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체적 노화 과정에 대한 유사체험이나 교육을 통해 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25], 모든 세대가 노인의 신체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직·간접적 프로그램의 운영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대사회는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젊고 아름다운 신체만이 아름다운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기 보다는 노인에게 적합한 미의 기준을 정립하고 미의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이 초기노인의 변화하는 신체를 수용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참여자들은 변화된 몸을 치장하는 것 보다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바라고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보다는 신체적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9], 노인들이 건강과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외모보다는 신체적 기능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10]를 볼 때, 초기노인을 대상으로 신체변화에 대한 중재 시 외모뿐 아니라 신체기능 및 건강에 대한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신체의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건강유지는 성공적 노화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26]. 따라서 노인이 외모에 치중하기보다는 활발한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종교적 믿음, 봉사 활동이나 기부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노년의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며 살아가고 있었다. 노년기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내면 지향적, 가치 지향적이라는 특성이 있고[27], 노인이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존재가 아닌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초기노인의 신체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는 초기노인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 대상자를 간호할 때 넓어진 연령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신체변화에 대해 경험하는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노인들이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초기노인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시도하

여 신체변화의 의미를 그들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여 초기노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들이 초기노인을 간호하는 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초기노인의 체험하는 신체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간호중재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체변화에 대한 경험은 개인적 경험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초기노인이 경험하는 신체변화의 의미와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초기노인이 체험하는 신체변화의 본질적인 주제로 '나이듦에 대한 연민', '타인의 모습 속에 투영된 나', '붙잡아두고 싶은 세월의 흐름', '외모에 우선하는 웰빙'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급격한 신체변화가 나타나면서 변화된 몸에 대해 아쉬워하고 늙어버린 자신이 서글프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타인에게서도 발견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을 보게 된다고 하였다. 노인이 되면서 나타나는 신체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나이든 몸과 함께 살아가지만 노화를 거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대로의 모습에 순응하고 살아가려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조금 더 젊게 보이고 세월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건강한 몸을 위해 노력하고 외면의 모습보다는 내적인 성숙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초기노인의 신체변화 체험의 본질을 통해 이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초기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넓어진 노인 연령의 스펙트럼을 고려하여 신체변화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계속적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신체변화를 수용하고 초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년기를 대비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20). 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Elderly statistics* Retrieved March 11, 2020, from <http://kosis.kr/index/index.do>
- [2] Y. J. Song. (2012). Breaking Age Barriers: Adornment of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Journal of social Research, 13(2)*. 83-111.
- [3] K. O. Rhee & J. Y. Lee. (2005). The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Young Old Men and the Perspective after Their Retire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7(1)*, 93-120.
- [4] Seoul 50 Plus Foundation (2020). *Seoul 50 Plus Foundation*. Retrieved May 20, 2020 from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55038#>
- [5] H. J. Lee. (2016, December). Re-recognition of the meaning of 'senior' and 'senior culture' through the drama *Dear My Friends*. In Proceedings from *The meeting of the Academic Association of Global Cultural Contents*. 161-167. Ajou University, Suwon.
- [6] I. S. Lim. (2015). The Appearance Anxiety and Aging Anxiety in an Appearance-Discriminatory Societ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9(4)*, 199-233.
DOI : 10.21562/kjs.2015.08.49.4.199
- [7] E. M. Sklar. (2015). Body Image, Weight, and Self-Concept in Men. *American Journal of Lifestyle Medicine, 11(3)*, 252-258.
DOI : 10.1177/1559827615594351
- [8] J. L. Bedford & C. S. Johnson. (2006). Societal influences on body Image dissatisfaction in younger and older women. *Journal of women and aging, 18(1)*, 41-56.
DOI : 10.1300/J074v18n01_04
- [9] G. S. Jankowski, P. C. Diedrichs, H. Williamson, G. Christopher, & D. Harcourt. (2016). Looking age-appropriate while growing old gracefully: A qualitative study of ageing and body image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1(4)*, 550-561.
DOI : 10.1177/1359105314531468
- [10] K. E. Chang. (200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Lived Experience of Aging of the Poor Elderl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4)*, 355-380.
- [11] J. A. Winterich. (2007). Aging, femininity, and the body: What appearance changes mean to women with age. *Gender Issues, 24(3)*, 51-69.
- [12] T. Liechty. (2012). "Yes, I worry about my weight... but for the most part I'm content with my body": Older Women's Body Dissatisfaction Alongside Contentment. *Journal of women & aging, 24(1)*, 70-88.
DOI: 10.1080/08952841.2012.638873
- [13] T. Leichy, N. F. Ribeiro, K. Sveinson & L. Dahlstrom. (2014). "It's about what I can do with my body": body image and embodied experiences of aging among older Canadian men. *International Journal of Men's Health, 13(1)*, 3-21.
- [14] M. van Manen. (200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K. R. Shin. Trans.). New York: Sunn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15] B. L. Neugarten. (1996). *The meanings of age: Selected paper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6] E. G. Guba & Y. S. Lincoln.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17] E. V. Bennett, L. H. Clarke, K. C. Kowalski & P. R. Crocker. (2017). "I'll do anything to maintain my health": how women aged 65-94 perceive, experience, and cope with their aging bodies. *Body Image, 21*, 71-80.
DOI : 10.1016/j.bodyim.2017.03.002
- [18] W. S. Gim, D. H. Park & K. H. Shin. (2015). Self-Compassion, Other-Compassion, Mindfulness, and Quality of Life : Comparing Alternative Causal Model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3)*, 605-621.
DOI : 10.17315/kjhp.2015.20.3.007
- [19] I. S. Lee, & Y. M. Yang. (2015). The Relationship among Body Imag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Psychosocial Health of Female Undergraduat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2)*, 301-312.
DOI : 10.5392/JKCA.2015.15.02.301
- [20] J. Y. Lee, & H. J. Park. (2013). Effects of Self-Esteem, 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and Media Concern on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Body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5(3)*, 1-17.
- [21] S. H. Carson & E. J. Langer. (2006). Mindfulness and self-acceptance.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4(1)*, 29-43.

- [22] C. S. Yang. (2016). Acceptance of Aging and Death in Choe Il-nam's Novels and Their Meanings. *The Journal of Yeongju Language & Literature*, 34, 219-240.
- [23] Y. S. Chong. (2011). Search for Aging Well in the Korean Elderly Woman: Moving toward Matured Aging. *Korean Classical Woman Literature Studies*, 23, 5-56.
DOI : 10.17090/kcwl.2011..23.5
- [24] K. F. Slevin. (2010). "If I had lots of money... I'd have a body makeover:" Managing the Aging Body. *Social Forces*, 88(3), 1003-1020.
DOI : 10.1353/sof.0.0302
- [25] I. Kang. (2003). Effect of Adult' Senior Simulation on the Attitude toward Aging of the Elderly and Senior Simulator.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19, 7-30.
- [26] G. H. Min. (2004). Relationship between exercise participation and physical self - perception in older adul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3(2), 119-127.
- [27] P. Wink & M. Dillon. (2002). Spiritual development across the adult life course: Findings from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9(1), 79-94.

이 수 진(Su-Jin Lee)

[정회원]



- 2014년 2월 : 우석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8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질적연구, 정신간호
- E-Mail : sjlee@kcn.ac.kr

이 영 희(Lee Young Hee)

[정회원]



- 198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199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98년 3월~현재 : 가톨릭관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성인간호
- E-Mail : lyh@cku.ac.kr